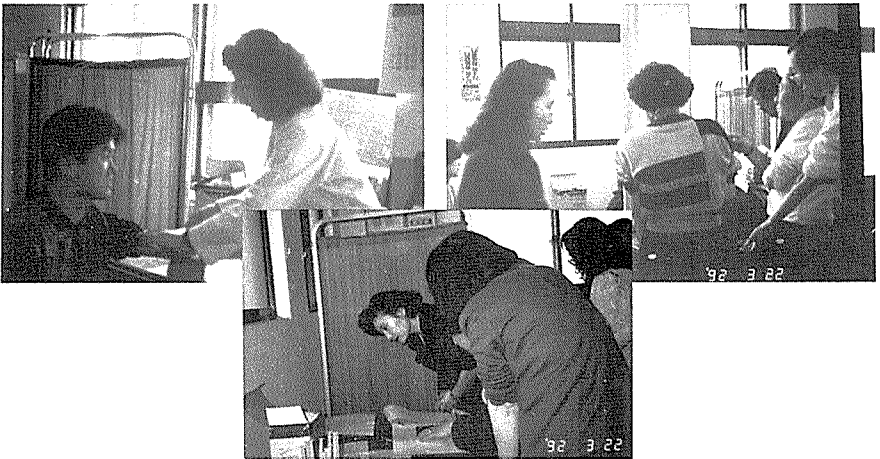


건강을 지키는 현장

“우리들의 선생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교직원 특수 암 검사에 노력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시지부 강동의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강동의원(강동구 천호동 453-75 강동 B/D 5층)에서는 국민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직원 특수 암 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은 CA-125검사(난소암)와 자궁암 검사 등은, 건강에 관심이 있어도 시간에 쫓기거나 어디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잘 몰라 망설이는 여교사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 셈.

지난 '91년에 강동·강남지역 학교에서 1,700여명, '92년에는 강남구·강동구·동작구·중구 관내의 교사 1,500여명을 검진하여 그중 적지않은 이상자를 발견, 치료를 권유했던 강동위원의 교직원 특수 암검사 사업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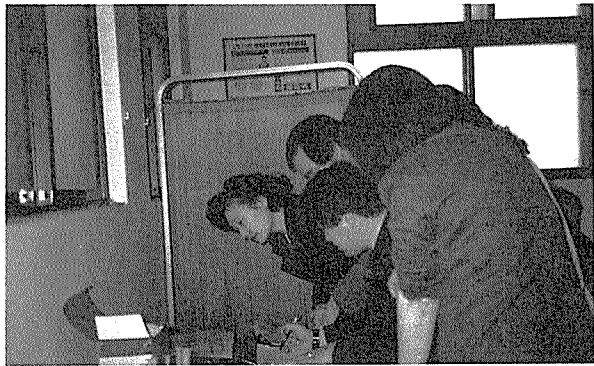
건강을 지키는 현장

• 자신의 건강, 누가 지킬까요?

우리나라 성인병의 사망원인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암”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검사를 받고 싶어도 업무에 쫓기고 기타 정신적인 여유를 갖지 못해 점차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건강 검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특히 우리의 어린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 건협 서울지부 강동의원은 오늘도 교직원 특수 암 검진을 위해 검진차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 어린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
건협 서울지부
강동의원은
교직원 특수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철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며, 더구나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 “선생님의 순진한 웃음 뒤에 병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강동의원에서는 '91년도에 강동구·강남구 지역 학교 교사 1,700여명을 검진하였고, '92년도에는 강동구·동작구·중구 관내 1,500여명의 교사들에게 검진을 실시했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91년, '92년에
총 3,200여명의
교사들에 대한
암검사를 실시해,
발견된 이상자들에게는
건강상담과 함께
치료를 유도했다.



그 중 약 5%에서 크고 작은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건강 상담과 수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상태였고, 그들은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계기였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한번은 어떤 선생님이 머리가 아프니 관련되는 검사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 머리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몇 가지 검사를 해 보았더니 자궁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강동의원의 남하경씨는 검진을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을 이렇게 떠올렸다.

처음에 이 사실을 믿지 않던 그 교사는 남씨의 지속적인 설득과 상담에 의해 수술을 받았고, 이제 완치되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다시 하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일은 겪던 과정을 이렇게 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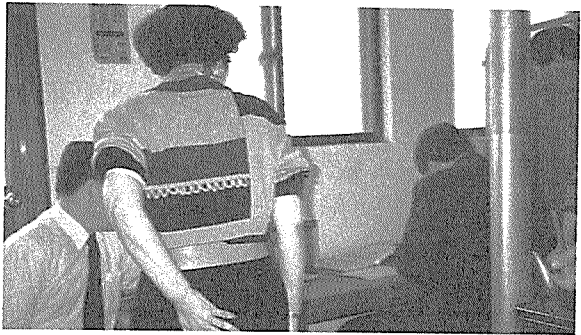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암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암이란 것을 알게 된 2개월 후에 수술을 해서 이제 완치가 되었습니다. 저를 검사하고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협 의 열성에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신뢰 같은 것도 생겼구요.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매년 건강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에요.』

건강을 지키는 현장

• 신속·정확한 결과 통보

한편 검진을 받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검사에 대한 결과 통보를 비롯한 사후처리라는 것을 또 하나의 신조로 삼고 있는 강동의원에서는 첨단 기술과 검사장비를 동원,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전달하는 것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데, 정도관리 학회에서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려는
생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을 첨부해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더라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있다.

• 건강할 때 검사 받는 정신자세가 필요할 때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을 발견하면 이미 때는 늦는다. 더욱기암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건강할 때 정기 검진을 받는 생활 습관은 환자 자신의 고통을 줄일 뿐 아니라 경제적·시간적 손실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

아직은 우리의 생활 풍토가 정기 검진에 대해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부터 신속히 의식을 개혁하여,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현명함을 지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